

■ 도, 벌초철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발표... 9월 20일까지 적용

문중벌초 최대 8명까지만...

가급적 분산 벌초·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금지 도 '마음·잠시·나눔벌초' 대도민 캠페인 전개 계획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방역당국이 벌초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로 이뤄지는 벌초철을 앞두고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 요구에 따라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 벌초를 위한 묘지 내 모임 인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4명까지 허용된다.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

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임벌초에 한해서는 모임 인원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벌초 시 방역수칙도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벌초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또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모여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할 것과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해 벌초를 하도록 권고했다. 벌초를 하기 위해 이동할 때도 같은 차량에

는 4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아울러 도방역당국은 도의 제주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의 고향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입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마음·잠시·나눔 벌초' 대도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마음벌초'는 되도록 도의 친척의 제주 방문을 자제하고,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등을 권고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잠시벌초'는 산소에서 벌초 작업만 진행하는 등 머무르기를 최소화하고, 종로 후 식사 등 뒤풀이를 금지해달라는 메시지다. '나눔벌초'는 자손들을 여럿으로 나누고, 벌초 시간 분산을 통한 거리두기를 준수해 벌초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뼘검둥오리 가족 21일 람사르습지인 1100고지 습지에서 한뼘검둥오리 가족이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 최전선에서 사투 간호인력 확보 '발등의 불'

"일선 현장 피로도 극심 처우개선 등 대책 시급"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이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지역 일선 병원 간호사들의 파업 참여 가능성은 낮지만 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124개 지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쟁의 조정기간 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주지역 보건의료노조는 제주혈액원 1곳이 가입돼 있어 일선 병원 간호사들의 쟁의행위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일선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데다,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병상이 추가 확보되면서 인력난까지 겹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감염병전담병원인 제주의료원에선 확진자가 늘면서 의료 인력

이 부족해지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7일자로 소속 간호사 10명을 긴급 파견했다. 또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추가 확보에 따른 의료진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당장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간호인력에 대한 기간제 채용을 2차례 긴급 공고했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고강도 노동에 따른 인력 이탈과 충원은 늘상 반복되어 왔지만, 요즘은 동료들이 과로 누적으로 그만 뒤도 잡을 말이 없다"며 "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무슨 심정으로 파업에 뛰어들었는지 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당국 뿐 아니라 일선 보건소와 병원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다. 적정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사 파업과 관련) 제주지역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식당·카페 객장영업 밤 9시까지"

도,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다중이용시설 2주마다 진단검사

23일부터 식당·카페의 객장 영업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제주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2명 이상이 포함되면 사적 모임 가능인원 총 4명으로 늘어난다. 단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처럼 오후 6시 이후부터 2인까지만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식당·카페의 객장 내 영업 가능시간이 밤 10시까지에서 밤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됐다. 아울러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학원·피시방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로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

생 등이 모두 포함한다.

편의점과 흡연실 등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객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실내 흡연실의 경우 흡연자끼리 2m 이상 간격으로 거리를 뒀다 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의 경우 1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이번주 원격수업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모든 중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연동·노형 지역 소재 중학교(4개교)만 이뤄지던 원격수업을 제주시 동지역 내 모든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전환하는, 기존보다 강화된 학사 운영 방안을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학기 단계별 전면 등교수업 기조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해 온 제주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산 흐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결국 '일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20일 이석문 교육감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에서 최근 학생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제

주시 동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자가격리자가 여전히 많고, 격리자를 통해 확진되는 흐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자가격리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수는 2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8일(오후 5시 기준) 등교중지 학생수는 2043명(중학생 1228명), 19일은 2120명(중학생 1290명)이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방역수칙 위반행위 잇따라 적발

신제주에 이어 제주시청 일대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제주시청 대학로와 고마로, 서사라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

상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장소 영업행위 ▷카페 등 업소 내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행위 ▷출입자 명부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 동부서는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2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등 총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www.jeju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해삼몸국의 특징

- 8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 잘 건조된 모자반을 찬 물에 불려 염분을 뺀 몸
- 바다의 인심으로 불리우는 몸에 좋은 해삼
- 3無 첨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랍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냄비 조리 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뚜껑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간이 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 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터질지 모르니 냄비의 뚜껑을 닫지 마십시오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64-725-1100**

제조 판매원 **신한에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서서길 7-10